

KIA 박정수 “올해 나도 우승하고파”



2015년 프로 데뷔 후 1시즌 만에 경찰 입대 3년만에 스프링캠프...“어떤 보직이든 OK”

“올해는 저도 우승하고 싶어요.”

누나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꽃미남 투수’가 돌아왔다. KIA 사이드암 박정수(22)가 그 주인공이다.

2년간 군복무를 하고 돌아왔지만 아이돌 외모는 변함없다. 박정수 스스로는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고 손사래 치지만 이전 실력으로도 누나팬들을 ‘심쿵’하게 만들 태세다.

지난 2015년 프로 데뷔 후 1시즌 만에 경찰 야구단에 입대한 박정수는 지난해 9월 제대했다. 올 시즌 다시 KIA 선수로 3년 만에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소화 중이다.

이미 벌써 4번의 불펜 피칭을 소화했고 투구수도 60개까지 끌어올렸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실전 연습경기를 앞두고 피치를 율리하고 있다.

2015년 데뷔 첫 해 1군 19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평균자책점 5.53을 기록한 박정수는 3차례나 선발 2실점 이하 경기로 가능성을 보였다. 2016년 경찰 입대 첫 해에는 11승을 거두며 퓨처스리그 다승왕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12경기 2승2패 평균자책점 4.05.

박정수는 “공을 많이 던지려 한다. 100구 이상 던지는 게 목표”라며 “잘하시는 선배님들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며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돌아오니 경쟁 의식이 더 커졌다. 경찰에서 2년간 경기를 많이 나가 실전 감각을 키웠다. 목표로 했던 체중도 늘었다. 지금은 다시 조금 빼졌지만

78kg 정도 나간다”고 말했다. 입대 첫 해 체중은 69kg에 불과했다.

체중이 늘면서 힘을 쓰는 투구 폼도 가능해졌다. 박정수는 “몸을 제대로 써서 던지니 볼끝이 생겼다. 공도 조금 더 앞에서 던지기 때문에 제구력도 좋아진 것 같다”며 “아직 보직이 정해진 게 없지만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선발과 구원 모두 경험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던져와 어느 보직이든 좋다”고 이야기했다.

KIA는 지난해 예비역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 군제대한 키스톤 콤비 김선빈과 안치홍뿐만 아니라 임기영까지 선발진에서 짝꿍 활약을 했다.

입대 전까지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임기영은 상무에서 2년을 보내면서 힘을 키웠고 완전히 다른 투수가 돼 돌아왔다. 같은 사이드암 계열인 박정수도 임기영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다.

박정수는 KIA의 예비역 효과에 대해 “내가 이어가야 한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며 “1군에 계속 붙어있어야 한다.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기록을 올리고 싶다. 지난해 KIA 우승을 보며 기뻐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부럽기도 했다. 올해는 우승 순간 자리에 있고 싶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 팬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다짐했다.

한층 성숙해져 돌아온 ‘꽃미남 투수’ 박정수 KIA 마운드의 새 활력소가 된다면 광주기가 챔피언스필드도 누나팬들의 행복한 비명으로 가득할 것이다.



쇼트트랙 최민정 자신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해”

올림픽 첫 무대

동하게 올림픽을 통틀어 4관왕에 오른 대한민국 대표선수 없다. 발자국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최민정(20·서남사)이 출격한다.

최민정은 13일 오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에 출격한다. 국내 선수 중 홀로 준준결승 무대를 밟은 최민정은 12일 강릉 영동대 쇼트트랙 연습장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최초의 올림픽 500m 제패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세계 최강을 지부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500m에서는 유독 힘을 쓰지 못했다. 진이경(1998년 나가노)과 박승희(2014년 소치)가 동메달을 딴 것이 전부다.

최민정은 “500m는 워낙 짧은 순간 승부가 난다. 변수가 많아 예상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기대에 어깨가 무겁지 않냐는 질문에는 “부담은 선수들이 감당하는 몫이라고 생각한다. 부응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 상대 선수에 따라 전략도 연구했다. 그런 부분이 경기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무대가 처음인 최민정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자다. 2015년과 2016년 세계선수권 연패에 성공

했고,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4차 대회에서는 계주를 포함해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 최초의 올림픽 4관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도 걸어볼 만하다. 처음 내서는 올림픽에 설리는 기대가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최민정은 담담한 모습이다.

최민정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준비를 해왔다. 오히려 부담 없이 맘 편히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철저한 대비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경쟁 상대를 몰자 “저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500m 뿐 아니라 모든 종목이 나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최민정의 설명이다. 빈틈없는 준비로 대회를 임하는 최민정에게 가능한 반응이었다.

이를 전 계주 실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3000m 계주 예선을 치르던 중 넘어졌다. 모든 선수가 급하게 속도를 올린 덕분에 결승 진출권을 가져갔지만 위험한 순간이었다.

“조금 놀랐다는 최민정은 “어쨌든 터치가 빨리 돼 평정심을 찾고 연습한대로 잘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결승에서는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쇼트트랙·피겨’ 가장 선호

국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단일팀이 뛰는 아이스하키와 스피드스케이팅 역시 탐광러 스타디움에서 팔버튼 빅토리(호주)와 원정 첫 경기를 벌인다.

F조의 울산은 상하이 상강(중국),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 멜버른 빅토리와 경쟁한다.

14일에는 제주와 수원이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친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제주는 홈인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세레소 오사카(일본)와 맞붙는다.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 부리람 유니타드(태국), 세레소 오사카와 G조에 묶인 제주는 죽음의 조에 속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낸 수원도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시드니 FC(호주)를 상대로 원정 첫 경기를 치른다. 자신감은 넘친다. K리그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데얀이 푸른 유니폼을 입고 K리그 2(첼렌지) 부천에서 활약한 바그닝요 브라질 출신 수비수 크리스토파 등 앞장 영입에 성공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2.6%), 부산·경남·울산(28.8%), 경기·인천(26.2%)은 쇼트트랙 관람을 가장 선호했다. 대전·충청·세종(37.5%), 광주·전라(35.3%), 서울(29.0%)은 피겨스케이팅 관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가 평창올림픽 경기관람 티켓이 무료로 주어진다며 가장 보고 싶은 경기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쇼트트랙 26.2%, 피겨스케이팅 25.4%로 집계됐다.

남북 단일팀이 뛰는 아이스하키(11.1%)와 스피드스케이팅(10.7%)은 3위를 형성했다.

이어 ▲스키점프(7.2%)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4.5%) ▲알파인·프리스타일 등 스키(4.2%)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경기는 4.2%, ‘잘모름’은 6.5%였다. 연령별로는 30대(36.1%), 50대(32.7%), 20대(29.4%)에서는 쇼트트랙을 1위로 꼽았다. 40대(34.0%)와 60대 이상(23.9%)에서는 피겨스케이팅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스

평창, 시속 70km 강풍...설상 종목 뿌리째 흔들린다

알파인 잇단 연기...스키점프·스노보드도 차질



12일 강원 평창의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이 강풍에 취소되자 경기 관계자들이 스키 기운을 철수시키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초반, 강원도의 강한 바람과 강추위가 설상 종목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다.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2일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대회전 경기를 강풍으로 인해 15일로 연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회가 열리는 용평 알파인경기장 일대에는 시속 7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종일 계속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온도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신 알파인센터에서 펼쳐질 예정이던 남자 활강도 같은 이유로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남자 슈퍼 대회전은 16일로 하루 밀렸다.

강풍으로 인해 이를 동안 선수들의 연습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대

자정을 넘겨 끝났다. 강력한 우송후보로 꼽힌 세계랭킹 1위 카빌 스토흐(독일)와 2위 리하르트 프라이어(독일)는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함께 하는 바이애슬론 역시 강풍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10일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전체 87명의 출전 선수 중 사격 10발을 모두 과녁에 명중한 선수는 3명에 불과했다. 11일 남자 10km 스프린트에서도 만발은 4명에 그쳤다.

바이애슬론은 야간에 조영 아래 치러지고 있다. 선수들이 총을 쏘는 사내는 강풍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선수들 모두 강한 바람에 총구를 겨누기조차 힘들다.

여자 7.5km 스프린트 금메달을 차지한 독일의 로라 달미어는 “강한 바람과 추운 날씨라는 악조건을 이겨내야 했다”며 허를 내뉘었다.

이번 올림픽은 1994년 릴리함메르 올림픽 이후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은 선수들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설상 종목은 야외에서 벌어지는 만큼 연기될 경우에 대비해 백업 일정이 있지만 추가로 경기가 미뤄지면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직위 관계자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대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스키연맹(FIS)과 경기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4팀, 亞 정상겨냥

첫 걸음...ACL오늘돌입

아시아 정상을 향한 K리그 4팀의 도전이 시작된다. 전북 현대, 제주 유나이티드, 수원 삼성, 울산 현대가 2018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조별 리그에 돌입한다.

먼저 전북과 울산이 13일 출발을 알린다.

전북은 가시와 레이슬(일본)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E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E조 톱시드를 받은 전북은 키치SC(홍콩), 텐진 관산(중국), 가시와 레이슬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전북은 올 시즌을 앞두고 대형급 선수를 영입을 통해 다시 한번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같은 날 지난해 FA컵 우승으로 ACL 티켓을 따낸 울산은 멜버른 레 탱글러 스타디움에서 팔버튼 빅토리(호주)와 원정 첫 경기를 벌인다.

F조의 울산은 상하이 상강(중국),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 멜버른 빅토리와 경쟁한다.

14일에는 제주와 수원이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친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제주는 홈인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세레소 오사카(일본)와 맞붙는다.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 부리람 유니타드(태국), 세레소 오사카와 G조에 묶인 제주는 죽음의 조에 속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낸 수원도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시드니 FC(호주)를 상대로 원정 첫 경기를 치른다. 자신감은 넘친다. K리그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데얀이 푸른 유니폼을 입고 K리그 2(첼렌지) 부천에서 활약한 바그닝요 브라질 출신 수비수 크리스토파 등 앞장 영입에 성공했다.